

(평) (론)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과 개발전망및 우리의 기대

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金 榮 鎮

지난달 8월 중하순에 걸친 대통령 각하 일행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은 국제간의 우호증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높인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 4개국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서 상호경제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당초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6.28조치등 혁명적 경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의 조짐이 불확실한 이때 이번 4개국에의 경제 및 기술진출의 터전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나행한 일이다. 물론 그 결실이 어느정도 성공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금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성실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케냐」의 비료공장, 「나이지리아」의 새수도건설, 「가봉」의 횡단철도 부설, 세네갈의 자유수출공단건설 등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들 4개국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점들이다.

그러나 한가지 두려운 바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불”을 잘타고 이 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기업끼리 서로 의도적인 혼선을 이르킴으

로서 제대로의 보탬도 못 보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 동남아나 또 중동 진출에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체험한 바 있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이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냉정하고도 차분히 상대국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도 도움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이들 네나라의 농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분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며 우리의 실익을 볼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

케냐

국토면적은 58만평방 킬로로서 우리나라의 약 6배가 되나 인구는 1,657만으로 우리의 43% 정도이다. 인종은 98%가 본토 흑인이고 공식언어는 수와힐리(Swahili)어를 쓰며 종교는 개신교33%, 모스렘 24%, 카톨릭 17% 등이다.

“한밭이 큰 골치거리”

케냐의 주식(主食)은 옥수수이며 80년 국민총생산액은 68억불로 우리나라의 약 8.5분의 1 정도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은 415불로서 우리나라의 1,511불에 비하면 27.5%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다.

그러나 경제성장율은 높아서 76~80년간의 년평균 성장율은 6.1%로 우리나라 7.6%를 뒤따르고 있다.

“主食은 옥수수가 으뜸”

1980년을 기준으로한 이 나라의 농업생산량을 보면 주식인 옥수수가 단연 으뜸이어서 145만톤(1,015만석)이며 두째가 감자로 36만톤, 세째가 고구마로 34만톤이다. 이 고구마와 유사한 카사바(타피오카) 63만톤, 원당(原糖) 25만톤, 바나나 13만 5천톤, 커피 8만 5천, 홍차 8만 7천, 면화 1만 3천톤 등이 생산된다.

가축의 현황을 보면 79년 통계로 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1천 60만두로 우리나라의 약 8배에 해당하며 면양이 4백만두나 되나 돼지는 불과 7만 5천두 뿐이다. 산양도 또한 4백 50만두, 낙타가 55만두, 닭이 1,750만수로서 이 나라의 농업을 종합하여 개평하면 전작농업으로 맥류와 두류생산이 없고 그대신 옥수수와 덩이뿌리 작물인 고구마, 감자, 타피오카가 특징 작물이다. 또 원당, 목화, 커피, 홍차 등 특작이 생산되나 그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목축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보다도 무역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경제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1980년의 수입액은 173억불이고 수출액은 103억불로 연간 약 70억불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커피, 석유, 홍차, 채소와 과일, 화학제품 그리고 연간 36만명의 관광객이 떨어트리고 가는 관광수입이 전부다.

“식량사정 충분치 못해”

수입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농산물만을 보면 80년에 87만톤(609만석)의 밀과 8만 4천톤(588천석)의 옥수수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부터 식량은 충분치 못하며 잘 알려진대로 한발이 큰 골치거리이고 6~7년만에 한번씩 닥치는 대한발은 많은 아사자와 부족의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 나라의 국토 면적은 우

리나라의 9배가 넘는 92만3천평방키로이며 인구는 통계로 확정된 것이 없으나 79년에 추정된 것에 따르면 7천7백만에서 약 1억 4백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우리나라의 9배”

이와같이 인구통계가 불확실한 것은 여러 부족이 활거하고 있기 때문이며(Hausa족, Yoruba족, Ibo족, Fulan족) 공식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다. 종교는 모스람이 약 47%, 기독교 34%로 되어 있다.

80년의 국민총생산은 661억불이고 국민 1인당의 소득은 780불이어서 같

은 해 「케냐」의 380불에 비하면 월등이 높은 수준이다.

1980년을 기준으로한 이 나라의 농업현황을 살펴 보면 좁쌀 320만톤(2,240만석), 수수 380만톤(2,660만석), 옥수수 155만톤(1,085만석), 쌀 72만5천톤, 고구마 23만톤, Yam(고구마같은 마의 일종) 1,500만톤, 카사바 1,150만톤, 토마토 40만톤, 땅콩 57만톤, 팜유(Palm oil) 67만5천톤, 코코아 17만5천톤, 목화 3만톤, 고무 6만톤 등이다.

축산상황을 보면 소가 1,230만두, 면양이 1,170만두, 산양이 2,400만두나 되나 돼지는 겨우 110만두이다. 닭은 대단히 많아서 1억 2천만수로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다.

“전작과 축산이 主種”

대체적으로 보아 일부의 쌀이 생산되기는 하나 전작농업과 축산을 주로하고 있으며 케냐와 같이 덩이뿌리인 카사바 등과 코코아 등 특작물의 산출이 특징적이다.

“수출품 95%가 原油”

이 나라의 주식은 카사바, Yam 등과 수수 등으로 일부의 식량을 도입하고 있는데 80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87만톤의 밀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매우 좋아서 수출액이 수입액의 18배를 넘고 있다.

수출품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유이다.

가봉

이 나라는 수년전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잘 알려진 나라로 국토 총면적은 우리의 약 2.6배 정도 되는 26만7천평방키로이나 인구는 겨우 135만정도다. 공식언어는 불어이고 종교는 전통적인 부족종교를 믿고 있다.

“국민소득 3,28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280불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부족이다.

농업생산품을 보면 주산품이 카사바로서 11만톤, 옥수수 8천톤, 땅콩 7천톤, 바나나 8천톤, 팜유 3천톤, 코코아 4천톤, 원목 229만입방 정도이고 축산현황을 보면 돼지 6천두, 소 3천두, 산양 9만두로 얼마 안되나 면양은 10만두로 가축증 으품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나라는 작으나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망간 등이 산출되는 부족이다.

무역수지는 1대 3 정도로 수출액이 많으며 수출품은 원유가 72%, 망간이 10%, 우라늄 8%, 원목이 6%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가 국가의 재원을 지탱하고 있다.

세네갈

이 나라의 국토면적은 우리 나라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19만6천평방키로이며 인구는 81년 통계로 581만명의 작은 나라이다, 공식용어는 가봉과 같이 불란서어를 쓰고 있으나 국어 통일이 안되어 부족에 따라 5개의 언어가 있다. 종교는 86%가 모스렘이고 기독교는 불과 5% 정도이다.

“주된 농산품은 땅콩”

1인당 소득은 370불이며 농산품의 생산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된 수출품은 땅콩기름 32%, 가축사료 11%, 인광석 10%, 원유 8%, 땅콩 6%, 수산물 6%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1:1.7의 심한 역조현상을 빚고 있다.

73년 서아프리카 일대를 휩쓸었던 대 한발때 굶주림과 「인플레」에 시달렸으나 75~76년 땅콩과 인광석의 증산으로 경제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보면 주된 농산품은 땅콩인 것 같다.

개발전망과 우리의 기대

“생산기술 우리 수준 못 미쳐”

이상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을 개관하였으나 생산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을 따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나라가 저들에게 기대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타피오카 등의 사료자원이나 원피

◇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과 우리의 기대 ◇

(소, 양) 커피, 땅콩의 수입외에는 농업분야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다. 더구나 그 수입도 해상 운임 관제로 구라파와 경쟁이 안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산품 수출이나 건설수출의 교환조건으로 농업분야에서는 기술지원을 비롯한 각종 훈련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가 귀국후 밝힌 보도에 따르면 케냐는 잠업분야의 기술훈련, 과수 및 원예분야의 가공처리, 저장 기술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쌀생산 및 가공저장 기술지도와 훈련, 농업기계화 엔지니어 훈련, 농업기계제작 합작회사 설립, 농장경영기술 훈련, 농업용수 개발 및 기술자 훈련, 어선의 기관사 및 항해사 훈련 등을 요청하고 있다.

가봉은 쌀생산기술 훈련, 영농기계제작 합작투자, 농업기술자 교환, 어업기술자 훈련, 수산물가공과 냉동시설합작, 기술협조를 위한 전문가교환 등이며,

세네갈은 농업분야의 각종 기술교환과 땅콩수입 문제들이다. 이상의 저쪽 요청 이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수개발에 저수지 및 지하수개발을 위한 나이지리아 진출 문제다. 이상 저들의 요망사항을 요약하였거니와 각종 농업기술지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를 비롯한 각종 농업조건이 우리와 다른 열대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공업분야나 토목 등은 우리의 기술을 그대로 저쪽에 옮기거나 훈련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농업은 유기적 생산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저나라의 자연 및 농업적 조건에 익숙지 않고서는 선블리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더욱이 쌀 농사나 잠업, 수산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 저들이 주산물이고 보면 농업 축산분야의 지원은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기술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지도 및 훈련을 시키느니 보다는 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훈련시킴이 어려움이 적고 실패율도 적을 것이다. 초청 훈련은 경비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우리가 저쪽에 가서 훈련 및 지도를 한다고 한다면 쌀농사, 잠업 등 자신있는 분야부터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것이며 이때 우리나라 자재인 잠종, 잠구, 제사기계, 농약, 비료 등을 함께 가지고 가서 보급시키면서 기술지도를 한다면 먼 장래에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아프리카 4개국의 농업현황과 우리의 기대 ◇

우리가 저들과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분야는 저들이 요청하는 농기구제작 이외에 배합사료 공장이나 종돈, 종계, 어업, 수산물 가공, 비료, 농약 등을 열거할 수 있으나 저들 나라가 본래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들이라서 불란서 또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높은 수준

의 기술과 장비로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더욱 합작투자의 경우 저들의 내자동원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각하의 순방으로 기대에 들 때 부푼 상태이나 매사에 차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빈병회수에술선참여합시다)

논두렁 · 밭두렁 · 수로변등에 함부로 방치된 농약빈병은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진 농약빈병에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쓰고난 농약빈병은 새마을 영농회별로 설치된 빈병수집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토록 하거나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반납토록해 빈병공해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습니다.